



# 朝鮮日報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상품권

서울 구름많음 21~29℃ ▶상보 A9면

단기 4338년 (음력 7월 26일 丙戌)

1920년 3월 5일 창간 ☎ 080-900-0077, (02)724-5114

chosun.com

2005년 8월 30일 화요일 라

## “9월 셋째주에 6자회담 갖자”

北 외무성 발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내달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갖자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당초 약속한 시기인) 이번 주 개최가 어려워진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적절한 개최 시기다. 그때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전정연습 면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월 12일에 시작되는 주에 가서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전시 대비 훈련인 울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이유로 6자회담 연기를 주장해왔다. 이 훈련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된다. 북한은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던 6자회담을 이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엔 할 수 없다고 최근 들어 말해왔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주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곧바로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 일자를 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미국 등 다른 참가국도 그때 회담을 재개하는 것에 별다른 반대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백남순 외상은 이날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던 6자회담이 한국과 미국이 하는 연례 군사훈련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선종합특파원 (블로그)jscho.chosun.com  
권대열기자 (블로그)dykwon.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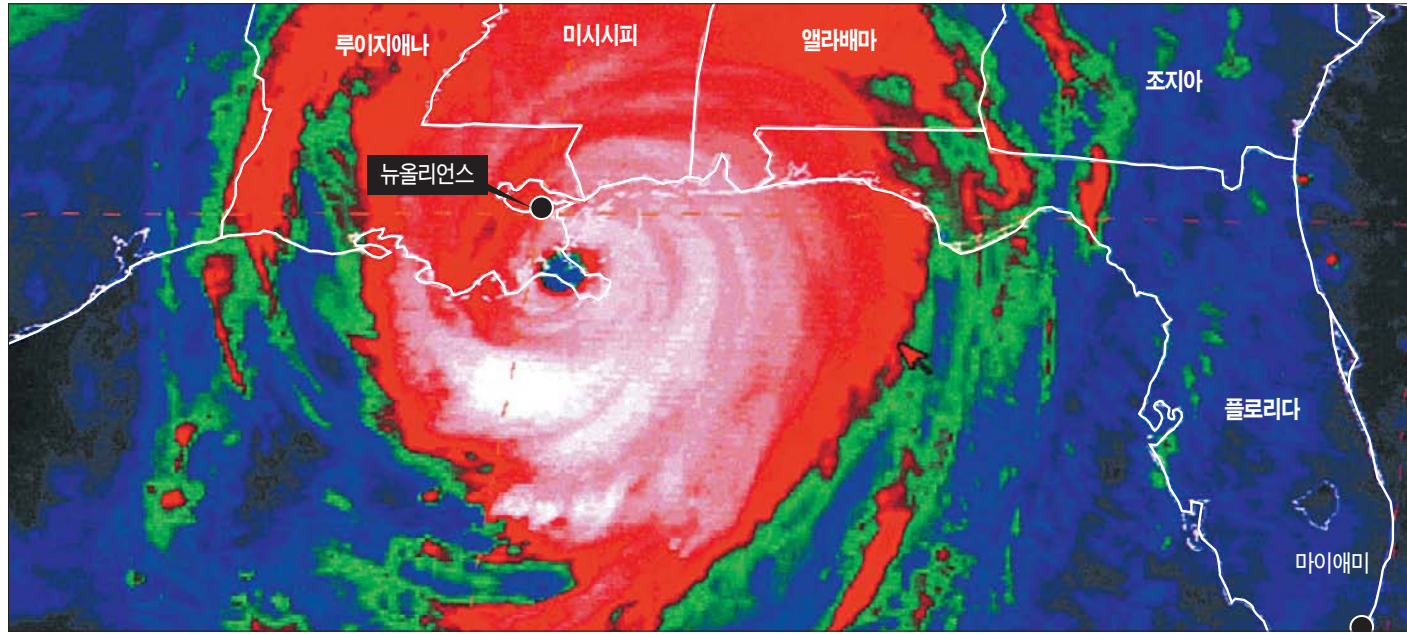
### 八面鋒

輿의원 “이순신은 12척으로 이겼는데 145척 갖고 왜 연정?” 12척으로 줄여서 치는 작전이었습니다.

○ 충북永同의 한 마을, ‘장수풍뎡이’ 사육지로 대박, 농사꾼 ‘장수풍뎡이 연구회’ 회원들에게 갈채!

○ 日 ‘이혼예비’ 주부들 남편 연금 나눠 갖기 위해 2년 기다린다고. 이혼 안하면 다 가질텐데...

발행면수 A32·B12·D8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에 상륙한 직후 모습이 29일 오전 7시10분(한국시각 오후 9시10분) 미 해양대기국(NOAA)의 위성 적외선 사진에 잡혔다. 미 연방정부는 이날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뉴올리언스 시 당국은 주민 48만명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다.AP촬영

## 油價, 폭풍 속으로

### 초대형 허리케인 美정유벨트 강타 어제 70弗... “100弗까지 폭등할수도”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석유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정유설비를 강타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이 전날 증가보다 4.61달러(7%) 급등한 70.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3년 WTI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다. ▶관련기사 A16면

이날 유가급등의 원인은 미국 정유공장이 밀집한 멕시코만 지역에 강력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상륙이 임박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구자권 해외조사팀장은 “국내 유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체의 원가는 0.7%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0.17% 상승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유가상승의 구조적인 원인은 전 세계 석유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정유설비를 강타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이 전날 증가보다 4.61달러(7%) 급등한 70.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3년 WTI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다. ▶관련기사 A16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석유공급은 하루 평균 8310만 배럴, 수요는 8250만 배럴로, 공급과 수요가 엇비슷한 상황이다. 수요 측면에선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석유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전 세계 석유 소비 증가율은 3.4%선이었지만 중국 소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4배가 넘는 15%를 기록했다. 전 세계 석유의 50%를 공급하는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들은 ‘오일달러’ 확보를 위해 ‘고유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이 석유를 놓고 투기 거래를 일삼는 것도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년 내 유가가 105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중호기자 (블로그)tellme.chosun.com



### 뉴올리언스 일대 100만명 긴급대피

미국 기상관측 사상 최대 허리케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9일 오전 6시10분(한국시각 오후 8시10분)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엘파이어와 인근 뉴올리언스, 미시시피주 해안을 강타했다. 카트리나는 최대 시속 232km의 강풍과 폭우, 8.4m의 해수면 상승을 동반하고 시속 16km로 북진했으며, 상륙 직전 약간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4급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이후 3급으로 약화됐다. 그러나 미시시피강 제방이 범람해, 해수면보다 3m 낮은 뉴올리언스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다. 이날 오전까지 48만5000명의 뉴올리언스 시민 전원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시 권역에서 모두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시 차원의 전원 대피는 유례없는 일이다. 또 미처 대피하지 못한 9만7000여명의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시내 미식축구경기장인 수퍼돔을 비롯한 10개의 대피시설에 수용됐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뉴올리언스의 요양소 노인 3명은 대피 과정에서 탈수증 등으로 숨졌다. 엘라베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문가들은 뉴올리언스 시내 석유정제·화학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오물이 흘러나올 경우 최악의 환경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블로그)heo.chosun.com

## “지나친 부동산 억제대책 경기부양 훼손시킬수도”

S&P등 신용평가회사 ‘8·31대책’ 우려

S&P, 피치 등 세계적 신용평가회사가들이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피치는 29일 ‘한국 주택담보대출 위험 제한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 부동산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나친 반감을 갖고,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 경기부양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의 데이비드 마셜 아시아 금융담당 이사는 “한국의 물가 상승 수준이나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오히려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P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지만, 거품은 일부 지역 얘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여 주의 깊은 관심은 필요하지만 거품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지만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부작용 없이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은기자 (블로그)ifyouare.chosun.com

### “김윤규 부회장 왜 잘랐나”

### 北, 금강산 관광객 50% 줄여

북측이 9월부터 금강산 관광객 숫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하루 600명으로 축소한다고 현대아산에 통보했다. 북한의 조치는 현대그룹이 최근 김윤규 부회장을 사퇴시킨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알려져 향후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A3면

현대아산은 29일 “북측의 요청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객 숫자를 하루 6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당분간은 2박3일 일정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 관광객 숫자는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3가지 코스에 하루 1000~1100명 안팎이다.

한대아산 관계자는 “지난 26일 금강산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 축소 방침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 조치가 김윤규 부회장 사퇴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개인 비리 혐의가 불거진 김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으나, 현대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실무 창구를 통해 ‘관광객 축소’라는 카드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조형래기자 (블로그)hrcho.chosun.com